

이달의 어항 51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항

일출과 월출의 장엄한 풍경이 펼쳐지는 곳, 아야진항

‘임연수가 낚은 물고기’가 제철이에요



람으로 언제나 북적거린다. 특히 요즘에는 임연수어가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전호지》에는 이면수어(利面水魚)라 하였고 《난호어목지》에는 임연수(林延壽)라는 사람이 이 고기를 잘 낚았다고 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임연수어(林延壽魚)라 하었다고 한다. 임연수어는 고등어처럼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어종인데, 군대생활을 해본 남자들이라면 고개를 저을지 모르나, 소금구이를 하거나 기름에 튀기면 곱질 맛도 좋고 살코기는 비린내도 없어 ‘민간인’ 들은 아주 좋아한다. 군복 입던 시절에는 왜 그리 싫었던지....

또한 아야진은 스킨스쿠버다이빙의 적지로 암반지대가 풍부하고 물이 깨끗하므로 시야가 좋고, 수중 기암절벽과 해초, 산호, 문어 등 어류도 다양하여 국내 дай버들에게 소문난 곳으로 물론 초보자를 위한 체험다이빙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시 금강산에 머물던 송시열(宋時烈)이 이곳에 들러 친필로 ‘청간정’이란 현판을 걸었다고 한다. 그러나 몇 번의 재건과 보수, 복원으로 정자 안의 현판은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이고, 그 옆엔 최규하 대통령의 ‘악해상조고루상(嶽海相調古樓上) 과시관동수일경(果是關東秀逸景)’ 시판도 걸려 있다(강원 유형문화재 제32호).

천학정(天鶴亭)은 기암괴석의 해안 절벽에 자리한 1931년에 지은 아담한 정자다. 100년이 채 안 됐지만 소나무 가득한 해안 절벽에 자리잡고 있어 풍치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일출 또한 가히仙境(仙境)이라 이를 만큼 아름답다.

죽왕면의 송지호(松池湖)는 화진포호와 더불어 고성의 대표적인 석호(潟湖)이다. 오호리·오봉리·인정리에 걸쳐 있는 호수의 둘레는 약 4km로 면적은 20만 평쯤 되며 수심은 4.5m~5m. 겨울철새인 고니 등 많은 철새들이 날아든다.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어 바닷물고기와 민물고기가 함께 서식하며, 재첩 등의 조개류도 많다.

○ 리나라에는 고성군이 2개 있다. 하나는 경상남도에도 속한 고성군(固城郡), 또 하나는 강원도에 속한 고성군(高城郡)이다. 이중 강원도 고성군은 남한땅 동북쪽 끄트머리에 자리한 고을로 내륙은 여느 강원도 땅처럼 깊어 산림이 울창하고 경관이 아름답지만, 대부분 민통선지역에 속해 있고 해안선은 매우 단조로우며, 곳곳에 모래톱과 송지호·화진포·삼일포 등 석호(潟湖)가 발달했다. 또한 대진·거진·공현진·아야진 등에는 소규모의 만입(灣入)이 발달하여 주요 어항이 형성되어 있다.

이중 고성의 최남단에 위치한 아야진(我也津)은 옛 조상들의 구전에 의하면 마을 속칭명을 구암리(龜岩里)로 불려왔는데 아야진 등대가 위치한 바위가 거북처럼 생겼다고 하여 거북 ‘구(龜)’자와 바위 ‘암(岩)’자를 써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그후에는 작은 항구라는 뜻인 얘기미로 애칭되고 있다.

아야진으로 부르게 된 동기는 얘기미의 ‘미’자가 항구, 진(津), 포(浦) 등의 뜻으로 사용됐던 사실에 근거 했을 때 얘기미의 ‘에’자가 한자로 표기되면서 ‘아(我)’자로 변형되었다는 설도 있고, 현재의 아야진6리 교회로 접하는 아야진에서 반암리로 넘어가는 산(山)형태가 ‘야(也)’자 처럼 생겼다고 하여 우리라는 뜻을 포함, 아야진(我也津)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러한 아야진은 전통적인 어촌부락으로 두 개의 항포구를 갖고 있는데, 항 주변 바닷가에는 바위가 많아 낚시를 즐기는 사



♣ 주변관광지

청간정(淸澗亭)은 관동8경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풍치가 아름다운 정자이다. 설악산에서 흘러내리는 청간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의 구릉 위에 있는 정자에서 바라보는 동해안 풍경과 남서쪽으로 보이는 울산바위 풍광이 일품이다.

정자의 창건연대와 건립자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1520년(중종 15년)에 간성군수 최청(崔淸)이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1662년(현종 3년)에 중수할 때 당

♣ 먹거리

바다를 끼고 여행할 때 회를 맛보지 않으면 매우 섭섭한 법. 고성 바닷가에도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다. 그러나 대진항, 거진항 같은 큰 항구의 번잡함이 싫다면 아야진항이 권할 만하다. 갯바위 어우러진 해변 풍치도 좋고, 주민들도 친절하다. 또한 비빔국수의 하나인 회국수가 유명한데 원래 함경남도 해안 지방의 고유 음식으로 가나다란 녹말국수에 명태회, 오리, 계란 등을 얹어 먹는 음식인데 한국전쟁 당시 남쪽으로 이주해 정착한 사람들에게 의해 전해진 음식중 하나이다.

♣ 찾아가는 길

- 1) 영동고속도로 주문진 나들목(7번 국도) → 속초 → 천진 → 아야진리
- 2) 서울(6번 국도) → 양평(44번 국도) → 흥천 → 인제 한계 삼거리(46번 국도) → 용대 삼거리(56번 지방도) → 미시령 → 속초(7번 국도) → 아야진리